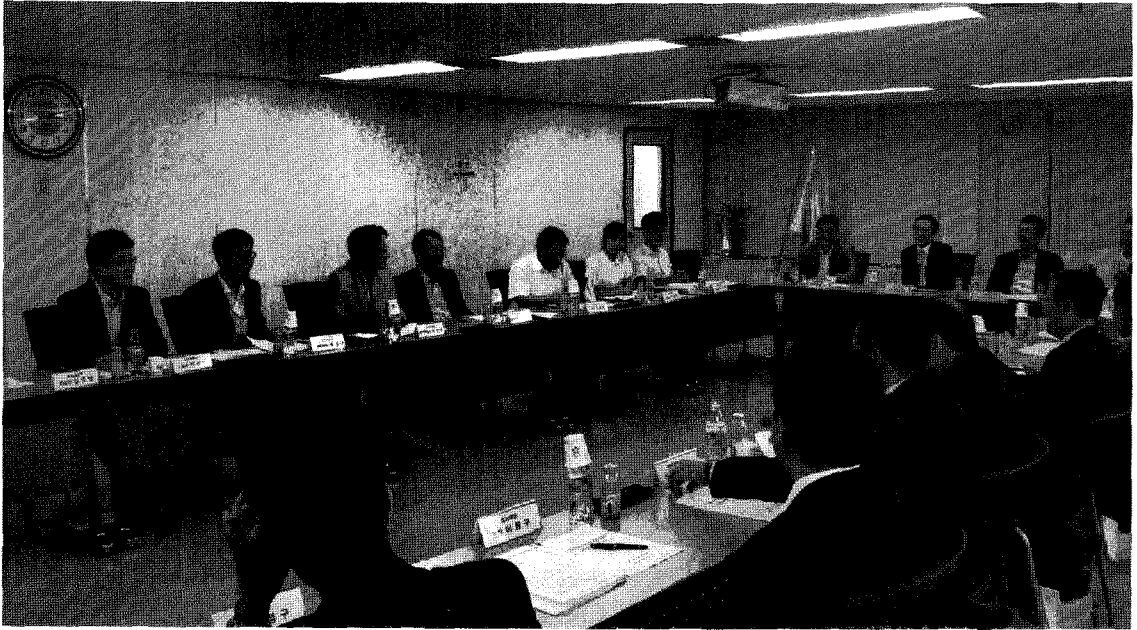


## 선협, 부산 및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선사 간담회 부산항과 광양항 환적화물 유치 확대방안 논의



한국선주협회(회장 이종철)와 국토해양부는 7월 21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국내 항만의 환적화물 유치 확대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 국토해양부 주성호 물류항만실장은 “부산과 광양항 등의 환적화물 유치확대를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금융위기 및 일본 대지진에 따른 물동량 변화, 선사별 국내항만의 불륨인센티브제도 절감액, 일본, 중국에서 환적화물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주 실장은 또 현재 운영중인 항만의 불륨인센티브제도, 환적화물 유치정책, 부산·광양 2 Ports체제에 따른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줄 것

을 당부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홍아해운 이환구 전무는 국내에서 근해선사가 처리하는 환적화물은 피더 화물보다는 자사의 환적화물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국가정책은 피더 화물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며, 처리물량 중 70%가 자사 환적화물이며, 피더의 비중은 30%를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형선사 전용부두 규모는 1,700TEU급 컨테이너선이 접안할 수 있는 정도가 적합하다며, 최근 선박의 규모 및 추세를 고려할 때, 1,000TEU급 미만의 소형부두는 중소형선사 전용부두로 미흡한 만큼, 2-3단계가 연근해선사 전용부두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그리고 연근해선사에 대한 하역요율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전대료를 낮게 책정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고려해운 박정석 사장은 수출입물량의 70%가 연근해 선사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2-3단계를 공동물류, 공동서비스의 개념으로 개발하는 한편, 부산 신항·북항 동시기항 선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망했다.

특히 박 사장은 연근해선사를 동반성장의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상대적으로 고가인 중소형선의 컨테이너 처리비용을 감안하여 차등적인 인센티브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태영상선 박영안 사장은 피더전 용부두가 아닌 연근해선사 전용부두로의 컨셉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며, 신항 및 북항에 각각 연근해선사 전용부두를 확보한다면 비용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주성호 실장은 2-5단계를 PA에서 운영하는 공영터미널로 연근해선사에게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대형선사 위주 정책에서 연근해선사 위주의 정책 수립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는 현대상선터미널(2-2)과 2-3 또는 2-4를 역할 교환하는 것(Big Deal)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장금상선 정태순 회장은 빅딜을 검토할 필요 있다고 강조하고, 2-5단계의 경우 초대형선박 입항이 가능토록 수심 18m를 확보해야 하며, 2-3단계는 연근해선사 전용부두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현행 인센티브제도는 과거 실적대비 증가폭이 큰 선사가 유리하기 때문에 고정 고객에게는 매

우 불리한 제도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수출화물에 대한 물류비의 정확한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제안했다. 과거 물류비 비교 연구용역의 결과물로 국내 물류비 비중이 일본에 비해 높다는 지적이 있는데 사실과계를 정확히 따지기 위해 다시 조사할 필요 있다고 강조했다.

한진해운 이원우 부사장은 2011년 6월까지 처리한 70만TEU 중 41만여TEU가 환적화물이라며, 볼륨인센티브관련 선사별 환적화물량 총량을 기준으로 시행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부사장은 외국항만의 경우 부두 신설시 대형선석과 피더선석을 함께 건설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형선석에만 치중하여 개발하고 있어 항만 효율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내 컨테이너화물 유치 확대를 위해서는 처리비용 인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부산항보다 환적시스템이 잘 구비된 싱가포르와 로테르담의 경우 오히려 가격적인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중국의 상해도 환적화물 처리비용이 컨테이너 1개당 50달러로 부산(70달러)에 비해 저렴하다고 강조했다.

한진해운 김규경 상무도 우리나라는 직교역화물 처리비용은 저렴한데 비해 환적화물 처리비용은 상대적으로 고가인 점이 문제라며, 국내 항만의 인센티브제도는 효과가 있으며 인센티브를 감안하여 환적화물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상무는 부산 북항과 신항간 피더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며, 특히 배후단지 분양시 소규모, 다수의 운영업자 선정이 과당경쟁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대규모 분양을 통한 대형물류업체 국내진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주성호 실장은 대규모 배 후단지 분양에 대해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STX팬오션 권오인 상무는 외항운송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조달금리가 인하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요청했다. 정기선사의 1년 영업이익은 3%에 불과하나 국내 조달금리는 6~7%로 국내 선사들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인근국가인 일본은 0~1%, 대만은 3%인 점을 감안할 때 적정수준 인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남성해운 이동은 이사는 중소선의 기준마력에 맞는 예선지원을 통해 불필요한 고마력선 이용에 따른 추가 예선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국선주협회 김영무 전무는 기준마력을 초과하는 고마력 예선 사용시 추가비용의 75%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시행중임을 설명하고

일부 D/C 적용여부를 예선사에서 누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선사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정부측에서는 국토해양부 주성호 물류항만실장을 비롯하여 박종흠 물류정책관, 송상근 항만물류기획과장, 이민석, 김주창, 김형대, 이인자, 황상호 사무관이 참석했다.

해운업계에서는 고려해운 박정석 사장을 비롯하여 장금상선 정태순 회장, 태영상선 박영안 사장, 한진해운 이원우 부사장, 김규경 상무, 천경해운 서성훈 부사장, 흥아해운 이환구 전무, 범주해운 노점구 전무, 동진상선 청성중 전무, STX Pan Ocean 권오인 상무, 남성해운 이동은 이사, 동영해운 백승교 이사, 협회 김영무 전무, 양홍근 이사 등이 참석했다.

## KMI · 부산대, 연구 교류 · 협력 MOU 체결 해양수산 분야 공동연구 및 협력 강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김학소)과 부산대학교(총장 김인세)가 연구 교류 및 협력에 관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KMI와 부산대는 해양수산 분야의 공동연구 및 조사, 학술행사 공동개최, 정보교환, 연구역량 강화 등 연구협력을 강화하게 됐다. KMI와 부산대는 이미 항만운 영기술 분야에서 연구협력을 해왔으며, 2010년 3월에는 '미래물류기술포럼'을 결성하여 물류기술의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

해 공동 노력하고 있다.

한편 미래물류기술포럼은 KMI 주도로 결성됐으며, 부산대 김인세 총장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 선협, 국제동향점검 실무협의회 발족 대이란 제재와 경쟁법 강화조치 등을 점검



대이란 제재동향과 향후 전망, EU와 미국, 홍콩, 싱가포르 등 국가별 경쟁법 동향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등에서 이에 대한 보완설명이 있었다. 특히, 참석자들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조치가 구체적이지 않은 관계로 다소 혼선이 우려된다고 하며, 선사측에서 개별적으로 타회사의 중동서비스 이행여부와 구

한국선주협회(회장 이종철)는 7월25일 해운산업에 대한 국제이슈를 점검하고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동향 점검 실무협의회를 발족시켰다.

이 협의회는 협회를 비롯하여 외항해운업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토해양부 등의 관계자 20여명으로 구성됐으며, 두달에 한번 정례적으로 회합을 갖고 해운산업에 대한 국제이슈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협회는 7월25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제1차 국제동향 점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미국의 대이란 제재조치와 EU 등 선진국의 경쟁법 강화조치 등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협회가 동 협의회를 발족시킨 것은 최근들어 국제기구 및 선진국들이 해운산업에 대한 규제를 점차 강화함에 따라 이에 대한 상시점검과 효율적인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 날 실무협의회에서는 먼저 협회에서 미국의

제적인 제재범위 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협회 차원에서 정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과 협력하여 사실확인에 주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날 협의회에서는 2008년에 EU에서 정기선 동맹에 대한 경쟁법 적용 등으로 주요 해운국에서는 경쟁법 적용에 대한 논의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논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협회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조치에 대한 진전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회원사에 제공키로 했다.

한국선주협회 관계자는 “최근들어 해운산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국제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해운업계와 정부, KMI간 정보공유의 장이 필요해 협의회를 구성하게 됐다”며, “이 협의회가 정례적인 모임을 통해 국제이슈들을 점검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대한조정협회, 2011 Korea Open Regatta 개최 조정의 저변확대를 위한 참여형 대회 성황리에 마쳐



한국 조정의 현재와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전국조정선수권대회 ‘STX컵 코리아 오픈 리카타’가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경기도 하남시 미사리 조정경기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대한조정협회 이종철 회장은 개막식에서 “지난 해 조정협회장을 맡았고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해왔다. 오늘 열리는 대회로 그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조정의 저변 확대를 위해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 이제 첫걸음을 시작한 것 뿐이다.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조정의 저변 확대를 위해 참여형 대회로 기획된 2011 STX컵 코리아 오픈 리카타 대회는 약 3만5,000여명의 방문객이 모이는 등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개막식은 한국체육대학교 무용학과 학생들의 국악 공연을 시작으로, 오페라 공연 등 풍성한 볼거리가 가득했다. 또한 개막식 3시간 전부터 장내에서는 다양한 이벤트와 게임이 진행돼 대회장을 찾은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대회 첫날인 7월 30일에는 조정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가 열린 가운데 고교리그(500m) 남·여 스프린트(500m) 일반인 팀(500m) 경기가 펼쳐졌다. 고교리그에서는 대원외국어고등학교가 2분1초95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고, 여자 스프린트는 수원시 체육회(1분36초65)가, 남자 스프린트는 한국체육대학교(1분22초91)가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일반인 팀 경기는 연세대OB(1분55초97)가 녹슬지 않은 실력을 과시했다.

이어 마지막 경기인 2,000m 노비스(친선전)에서는 옥스포드(영국), 맬버튼(호주), 와세다(일본), 게이오(일본) 등 세계 명문대학 조정팀과 서울대, 연세대, 한국외대 등 국내 대학팀들이 승부를 펼쳤다. 또한 이 경기에는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 팀이 가세해 조정의 대중화와 인기 몰이에 큰 영향

력을 발휘했다.

멜버른이 6분00초02로 우승을 차지한 가운데 게이오(일본)와 옥스포드가 그 뒤를 이었다. 무한도전 팀은 8분02초93을 기록, 최하위인 8위에 그쳤지만 경기장을 찾은 관중들에게 많은 격려의 박수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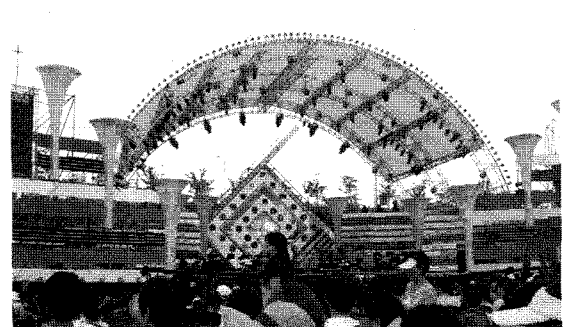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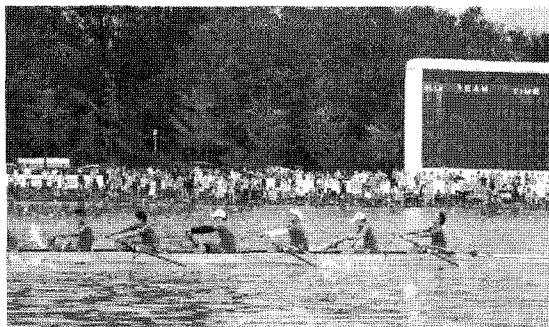
2010년 8월 이종철 STX부회장이 대한조정협회장으로 취임하며 추진한 TV 오락프로그램과의 연계로 조정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크게 개선됐다. 이날 관중들의 대부분도 '무한도전' 팀을 보기 위한 목적이 컸지만 다른 선수들의 경기들을 지켜보며 조정에 대한 관심을 키울 수 있었다.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계속된 대한조정협회 등 관계기관의 노력도 효과를 발휘한 순간이었다. 2010 광주우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조정대표팀은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를 수확해 참가종목 중 가장 많은 수의 메달을 거둬들였지만 국민들의 관심은 전혀 얻지 못했다. 조정에 대한 국내 인식이 너무도 저조했고 선수층도 얇은 탓이었다. '조정의 저변 확대'

를 기치로 내건 협회는 최초로 국가대표 선수들의 해외 전지훈련을 보내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확대해왔다. 대한조정협회의 이계백 전무이사는 "초등학교 팀 창단 문의 등 어린 선수들이 찾아와 조정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등 인식이 넓어지고 있음이 피부로 느껴진다"며 한국 조정의 희망적인 모습을 확신했다.

선수들의 조정 경기가 모두 끝나고 오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2011 Korea Open Regatta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는 아름다운 콘서트가 열렸다. 늦은 시간에도 조정 경기를 관람한 많은 관중들이 콘서트를 위해 미사리 조정 경기장을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켰다. 관중들의 환호를 받으며 국내 유명 가수들의 무대가 이어졌고 오후 9시에 콘서트가 끝이 나면서 대회 첫 날 준비된 모든 개막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국내 유명 예능 프로그램과 연계한 성공적인 대회의 개최로 조정 스포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를 높일 수 있었다.



## 해양문화재단, 제6회 해양사진대전 시상식 개최 해양에 대한 의미 되돌아보는 뜻깊은 자리 가져



해양문화재단(이사장 오공균) '제6회 대한민국 해양사진대전' 시상식이 7월 13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개최되었다. 지난 2006년부터 진행돼 올해로 6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해양사진대전은 작품 수와 질적인 면에서 해마다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진공모전이다.

이번 대전에는 4월1일부터 5월19일까지 49일간 해양 의식, 해양관광, 해양환경과 오염, 해양산업, 해양레포츠 등 해양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총 4,790점의 작품이 응모됐으며, 예심과 본심을 거쳐 총 60개의 작품이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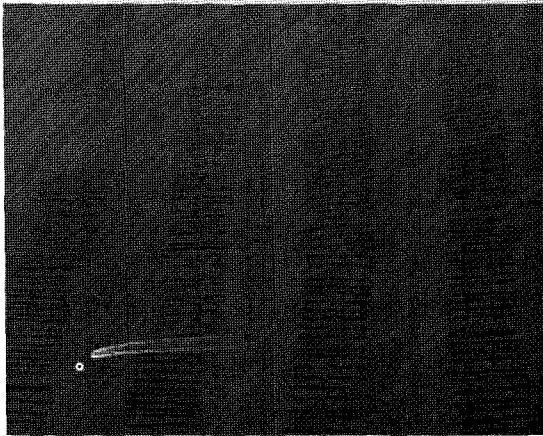
그 중 최고의 수상작인 금상에는 '귀가'(국토해양부장관상)와 '바다는 아프다'(매일경제신문사회장상)가 시상되었다. 해양문화재단 관계자는 "올해로

6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해양사진대전은 역대 최고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그만큼 많은 작품가운데 선정된 작품을 시상하는 자리인만큼 매우 영광스럽고 뜻깊은 자리"이라고 전했다.

이번 시상식에는 국토부 및 해양관련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해양에 대한 의미를 되새겼으며, 시상식장 입구에 수상작 60점의 작품을 전시해 시상식에 참가한 모든 분들과 작품을 함께 관람하였다.

해양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는 역대 최고의 경쟁률을 보인 만큼 더 좋은 작품으로 관객들을 맞이하게 됐다"며 "많은 분들이 시원한 바다사진을 통해 무더위를 잊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출품작 중 금상작에는 국토해양부장관상과 매일경제신문사 회장상과 상금 300만원이, 은상작에는



해양경찰청장상과 해양문화재단 이사장상과 상금 200만원이, 동상작에는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상,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상, 한국선주협회 회장상, 부산항만공사 사장상, 한국도선사협회 회장상, 인천항만공사 사장상, 울산항만공사 사장상과 상금 100만원이, 입선작에는 해양문화재단 이사장상과 상금 20만원이 수여되었다.

최고의 수상작인 금상은 귀가(국토해양부장관상)와 바다는 아프다(매일경제신문사회장상)가 수여되었다. 여러 수상작품들이 해양에 대한 다양한 창작 활동을 보여준 가운데, 특히 금상인 신성안씨 작품 귀가는 드넓게 펼쳐진 김양식장의 전경 속에서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어선 한 척을 그림을 그리듯이 나타냈다.

한편 금상인 엄익상씨의 작품 바다는 아프다는 아름답고 활기 넘쳐야 할 해운대 해수욕장의 백사장 에 쓰레기들이 널부러져있는 모습을 렌즈에 담아, 인간이 자연에게 아픔을 주는 이미지를 표현했다.

은상은 박금옥 씨의 즐거우세요?와 김정순 씨의 독도는 우리땅이 받았고, 동상은 정영기 씨가 출품한 공존 외 6점이 수상했다. 이 밖에 입선작 50점이 선정됐다.

수상작들은 지난 7월 4일부터 경복궁역 서울메트



로미술관 1관에서 전시되었으며, 서울 전시 후에는 10월까지 4개월간 대전 부산 울산 공주 인천 광주 등을 돌며 순회전시된다.

이 전시회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장을 개방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양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다.

### 국토해양부 오션폴리텍 취업박람회 개최 대한민국 해운산업의 중추적 역할 수행 기대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7월 12일 부산 영도에 위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외항해운선사 및 선박관리선사를 대상으로 오션폴리텍 외항상선 3·4급 해기사 교육생을 위한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취업박람회 무대에 오른 87명의 예비 해기사들은 지난해 11월 4:1의 경쟁을 뚫고 합격한 우수한 인재들이며, 현재까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단체생활을 하며 9개월간의 이론교육과 승선실습의 이수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들은 선사에서 9개월 기량의 개인실습을 마치면 안정적이고 장래가 보장되는 직장에서 연봉 3,500만에서 4,500만원의 해기사로서 일하게 된다. 5년 이상 승선시에는 보다 높은 임급의 해운관련 직종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10년 이상 승선시에는 대형 컨테이너선 및 LNG선 등의 선장으로서 우리나라 해운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 KMI, “항만산업 살리자!” CEO포럼 출범

## 김학소 원장 “항만산업 단결·국제화” 주장



항만산업의 활로 모색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김학소) 주도로 설립된 ‘항만산업 CEO 포럼’이 7월 29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사전에 조정을 거친 항만산업 CEO포럼의 임원진이 발표되었는데, 공동의장은 KMI 김학소 원장과 코스모스쇼핑 강의구 회장이 각각 맡고, 공동부의장은 한국선박수리조합 이동희 회장, 한국선박관리업협회 정영섭 회장, 부산항암산업협회 이운재 회장, 한국해대 동창회 박항무 회장, 목포해대 동창회 이은석 회장 등 5명이 맡기로 했다.

또한 고문단에는 한국해양대학 오거돈 총장, 김철두 전차관, 이재균 전 국토해양부 차관, 박정범 항만위원장 등이 위촉되고, 지도교수는 한국해양대

학교 김길수 교수와 동의대학교 조삼현교수가 맡기로 했으며, 뉴본마린의 주택곤 사장을 비롯하여 총 10명이 공동집행위원에, 이와는 별도로 9명이 자문위원에 각각 임명되었다.

항만산업 CEO 포럼은 항만관련CEO들의 지속적인 정보교환과 협력체제 구축으로 정부의 항만정책에 대한 협조는 물론 항만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제화를 모색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창설이 됐다.

이날 제1부 행사로 열린 항만산업CEO포럼 창립총회에서 김학소 공동의장(KMI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가교역의 관문역할을 하는 항만관련 산업계의 역할이 없었다면 오늘의 한국이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그러나 우리나라의 항만산업은 규모가 영세하고 과장경쟁 속에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대응전략도 갖지 못했다”

고 지적했다. 김학소 의장은 부산항이 세계 5대 항만이지만 전세계 선용품공급 시장의 규모가 378억 달러임에도 불구하고 부산항은 2.4억 달러에 불과한 실정이며, 조선기자재업, 수리조선업, 유류공급업 등 항만관련 산업이 현재 불황과 경기침체로 고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학소 원장은 따라서 이번 항만산업 CEO 포럼 창립을 계기로 “항만관련산업이 국내항만에서만 경쟁할 것이 아니라 업체간 단결을 통해 전세계 항만을 대상으로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립총회 후에 열린 제2부 워크숍에서는 KMI 김범중 본부장이 ‘우리나라 항만관련산업 현황과 발전 방향’, 인천항만공사 이홍식 본부장이 ‘인천항 크루즈산업 활성화에 따른 발전전략’, 한국해양대학교 오진석 교수가 ‘선박수리 및 해양플랜트 산업의 활성화 방안’, 부산항만공사 황성구 본부장이 ‘부산항의 서비스 비즈니스 창출방안’ 이라는 주제로 각각 강연했다. 또한 워크숍 말미에는 중앙대학교 방희석 교수의 사회로 국토해양부 신연철

과장, 동의대학교 조삼현 교수, 정일터빈 최정돌 사장, KMI 이성우 실장 등이 패널로 참가하여 패널토의를 가졌다.

이날 창립대회 및 워크숍에는 인천항발전협회의 전 사무처장 황치영씨등 인천항 관계자들이 다수 참가하여 ‘항만산업 CEO 포럼’이 부산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전국 조직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항만산업 CEO포럼은 부산에서 창립되었지만 전국항만을 순회하면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날 또한 관심을 끈 것은 부산 영도에서 출마설이 나돌고 있는 이재균 전 국토해양부 차관(해외건설협회 회장)과 역시 국회의원 출마설이 돌고 있는 노기태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총회장에 화환을 보내고 많은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다. 오거돈 한국해양대학교 총장은 축사가 예정되어 있어 참석했으나, 한국해양대학교 폐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해양과학기술원’ 설립 방안 국회 발의에 대처하기 위해 개회 직전에 자리를 떴다.

## KMI · 인니 해양부, 연구협력의정서 체결 양국의 해양분야 연구협력 및 지원방안 마련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김학소)은 지난 7월 5일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와 연구협력의정서를 체결했다. 이번 연구협력의정서 체결식에는 양국 해양수산계 주요 인사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김학소 KMI 원장을 비롯해 장관급 국회 국토해양위 위원장, 김영선 주 인도네시아 대사, 이재균 해외건설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Fadel Muhammad 해양수산부 장관 및 Gellwynn Jusuf 차관, Alex Retraubun 산업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이번 의정서를 통해 해양수산 분야 연구협력을 수행하고, 양국 해양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합의했다. 특히 양 기관 간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한-인도네시아 해양수산 연구협력센터’ 설립과 ‘한-인도네시아 해양수산 포럼’ 정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KMI가 운영하고 있는 ‘해양아카데미’를 활성화해 해양수산 인력 교육·교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인도네시아 연안 해운 활성화 방안, 항만개발 타당성 연구 등 실질적인 연구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튿날인 7월 6일에는 KMI와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제1차 한-인도네시아 해양수산포럼’을 개최해 양국의 해양수산 분야 정책 현황을 소개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